

“개혁 20주년, 비판과 성찰 계기로 삼자”

1994년 조계종단 개혁 20년 기념사업 추진 잇달아

1994년 일어난 조계종 종단 개혁은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이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정체제는 1994년 이후로 새롭게 재편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범등, 이하 추진위)’는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실무진 구성과 대략적인 사업안들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범등 스님이 위촉됐으며, 위원은 범등(위원장)·도법(결사추진본부장)·종훈(총무부장)·일감(기획실장)스님과 종회의원 법안·영담·일문·대오 스님, 개혁불사 관계자 정우(준종교부장)·효립 스님·비구니 육문 스님·성태용 교수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추진위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에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선출했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육원장 현음 스님과 종회의원 일문 스님 등 9~11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안으로는 4월 10일 기념법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관련 세미나와 사진전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식상한 백서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백서 발간도 추진되며 관련 대중 구술을 종합적으로 모아낸 구술 자료집도 제작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안은 실무위원회의 논의와 상부 보고를 거쳐 오

는 3월 6일 열릴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종단 개혁 20주년을 선양하는 것이 아닌 비판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위원장 범등 스님은 “항상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2월 20일 열린 조계종 ‘종단개혁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첫 회의(사진 위)와 19일 열린 지지협동조합과 고산문화재단의 20주년 좌담회(사진 아래). 두 사업 모두 과거를 선양하기보다 비판과 성찰을 기조로 하고 있다.

- 조계종, 추진위 구성 후 첫 회의
- 위원장 범등 스님… 실행위 구성
- 기념법회·구술 백서 발간 등 추진
- 지지조합·고산재단도 사업 시행
- 리서치·포럼 통해 성과·과제 점검

부조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0주년 사업은 단순히 선양이 아니라 불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20주년 기념사업이 요식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단체들이 준비하는 20주년 사업들도 다채롭다. 지지협동조합(이사장 김경

호)은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의 의뢰로 ‘조계종단 개혁 20년, 한국불교 진단과 미래 전망’ 주제의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단개혁 20년 기념좌담회 △개혁이후 20년 연대기(年代記) 제작 △종단개혁 20년, 불자 및 일반시민들의 불교 인식조사 △포럼: 개혁의 눈으로 현재를 본다 △세미나: 한국불교 대사회적관계와 불교관련사회법의 변천 △한국불교 미래전략 심포지움: 한국불교 미래 20년의 희망찾기 등 총 6개 사업이다.

2월 19일에는 종단 개혁 20주년 좌담회

가 가장 먼저 진행됐다. 이날 좌담에는 범등 스님(일지암 암주, 전 조계종 교육부장), 동출 스님(솔바람 대표), 서화동 기자(한국경제 문화부장), 최승천(전 금강신문, 조계종 출판부장), 이남재(위드아시아 사무총장, 전 개혁회의 홍보부장) 등이 참여해 개혁 이후 성과와 과제를 되짚었다.

종단개혁 20년 연대기제작은 종단개혁 이후 진행된 종단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화함으로써 개혁 정신과 진행된 사업들이 얼마나 부합되고 일치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불교인식 리서치 사업은 민주화(문민정부 출범) 이후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진행’을 일구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아 국민일반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검토, 성찰해 보는 계기를 만들자는 목표점을 두고 있다.

3월 말에는 ‘개혁의 눈으로 현재를 본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되며 4월에는 한국불교 대사회적관계와 불교관련사회법의 변천 세미나도 열린다. ‘한국불교 미래전략’ 심포지움은 미래 20년 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불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지협동조합 관계자는 “종단개혁 20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사업들을 그간의 성과와 영향을 냉철하게 진행경과, 성과, 영향 등을 냉철하게 검토해보고, 종단개혁이 갖는 의미를 되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쌍용차 해고자가 만든 1호차 구입할 것”

자승 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 30여명에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지해서 만든 1호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을 찾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여명에게 자승 스님은 이같이 말하며 불교계가 쌍용차 해고자 복지 문제에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했다.

2월 7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쌍용차 금속노조는 이날 총무원을 찾아 “그간 불교계가 노동자들에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끝까지 도움이 되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사회적 승소를 이뤘지만, 사측은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라며 “일반한 합의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불교가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이에 “노동계에 힘이 되기 위해 종단에서 노동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문제가 무탈하게 풀리기를 기도하겠다”며 “노동자 여러분에게 종단이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배현진 기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30여명은 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해고자 복지를 위해 불교계가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남북불교 교류 위한 ‘민추본 2.0’ 마련

민추본 2월 18일 정기총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민추본 발전방안 보고서(민추본 2.0) 등이 심의의결됐다.

2014년 주요사업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남북합동 봉축점등법회(평양 광범사), 만해 스님 70주기 기념 남북공동학술토론

회, 서산대사 남북합동 국가제향 봉행,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월례강좌 등을 확정했다.

민추본 발전방안 보고서 ‘민추본 2.0’도 심의의결됐다. ‘민추본 2.0’은 지속가능한 남북불교교류 모델창출, 남북불교교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남북불교교류 추진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민추본은 “민추본 2.0 세부 로드맵 마련을 위해 3개월간 TFT를 구성 운영하고, 민추본 창립 기념일인 6월 8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민추본 2월 18일 정기총회

인문학으로 보는 종교 강좌 열린다

3월 12일부터 개강, 종자연 통해 접수

인문학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종교 인권 시민강좌가 개최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시민강좌 ‘종교 토크보기’를 개최한다.

종교에 대한 객관적 거리두기를 통해

종교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마련됐다. 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인문학, 전쟁, 죽음, 헌법, 환경, 과학 등의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강의한다.

참가 신청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2만원이며 접수는 3월 7일까지 선착순 50명 마감이다.

배현진 기자

자승스님, KCRP 대표회장 추대

21일 정기총회서... 화합대회 등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이 한국종교인문화회의(KCRP) 제8대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자승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CRP 제29차 정기총회에서 공동회장단의 추대와 참석 대의원들의 인준으로 대표회장을 맡게 됐다. 신임 대표회장에 추대된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2년간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이웃종교 스테이, 종교평화청년 캠프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결했다.

신종일 기자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추진된다

문화재청 신년 보고... 수리 자격증 강화 등 계획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문화유산 관리 체계 정상화를 천명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문화재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2월 17일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승려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대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실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4월까지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 전면 점검을 통해 훼손도와 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는 단청·실측실계·보존과학 분야 등 실기시험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매년 현장조사로 자격증 불합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해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중요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1억원 이상의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원 이상의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문화재 보존 관련 정책도 손본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

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문화재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비 지원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은 현재 신청 대비 지원을 71%(2013년 65억원)에서 100%(2014년 105억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한다.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와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전통소재 연구, 전통문화 융복합상품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관세음보살님과 좌우보처 해수관음보살님 육관음보살님 밀적조역 84제대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관음성전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청염 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음재일 행사 :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일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16부처님 재일 : 매일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